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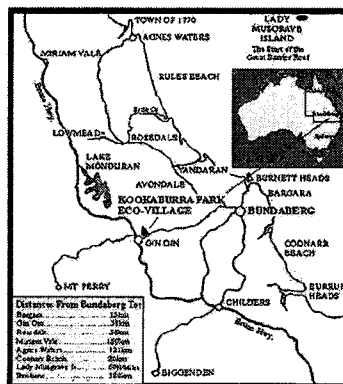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형 코하우징 - 호주와 뉴질랜드 Eco-Neighborhood Cohousing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곽 인 숙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호주와 뉴질랜드의 코하우징은 공통적으로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주거단지로서 거주형태는 다양하며, 미국에서 1988년 Kathryn McCamant & Charles Durret에 의해 California의 Berkeley에 세워진 cohousing으로부터 개념을 받아들여 발전된 형태이다. 미국의 듀렛(Durret)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코하우징과 유사한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

호주의 캐스케이드 코하우징(Cascade Cohousing)

1994년 7월에 1차 코하우징의 개발이 시작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주거를 희망하는 가족에게 개인소유로 주택을 분양(comdominium) 하였으며, 1999년 10월 현재 호주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코하우징 단지이다. 2차 코하우징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1차 코하우징 단지는 총 13호의 분양형 주택으로 호바트(Hobart)시 남쪽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 소유의 주택 외에 함께 식사도 하고, 이웃간에 대화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로 common house를 마련했다. common house에는 시설이 잘 갖춰진 부엌, 식당, 라운지, 어린이방, TV, guest-room, 세탁실, 작업장 등의 방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경치가 좋은 넓은 정원에 과실수와 자연림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로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하므로 일상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휴식처로 이용된다.



<그림 1> 캐스케이드 코하우징의 위치

코하우징의 위치 ; Hobart시 남쪽 근교(Hobart시와 Wellington산의 중간 위치)

공동생활로는 1주일에 4회의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공동저녁식사는 이 Cascade Cohousing에서 가장 성공한 일중의 하나이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주자의 반 정도가 채식을 선호하고 있어 공동식사에서 육류를 제외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저녁식사 준비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므로 거주자들은 1개월에 1회정도 준비하면 된다.

공통적인 사회적 행동은 비디오나 영화를 함께 보기, 저녁에 게임하기, 함께 식사하기, 춤과 파티 등이다. 1년에 2회 정도(여름과 겨울)의 정기적인 파티를 계획하는데, 이외에 개인적인 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한여름의 파티는 크리스마스와 같이 제한된 거주자나 몇몇 친구들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한겨울의 파티는 모든 친지들을 초대하여 춤과 음악으로 가득찬 파티를 열기도 한다.

특히 이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코하우징을 매우 좋아한다.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친구가 있고, 넓고 안전한 마당과 놀이터가 있으며, common house에 있는 자기들만의 놀이방이 있으므로 지루함을 느낄 시간이 거의 없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보는 어른들의 눈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애들 돌보는 것을 교대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볍다.

Cascade Cohousing의 주택은 에너지 절약적이며 '환경영향'을 고려한 구조와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주택은 2층 정도로 자연형 태양열 주택으로 건축재료로는 통나무나 공기가 유통되는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였다. 모든 주택은 북쪽으로부터 햇빛을 잘 받을수 있도록 지어졌으며, 태양의 열을 얻을 수 있는 온실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양지 바른 곳이라는 점이 이 코하우징에서의 삶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개인주택 내부에는 침실과 부엌, 욕실, 거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림2> Cascade Cohousing의 common house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을 코하우징의 개발과정에서 디자인하거나, 건축하거나, 관리하고 경영하고, 유지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합의하여 이들 사이에서 노동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지내의 모든 길과 조경은 거주자들이 열심히 일하여 자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요즈음에도 거주자들은 1개월에 한 번씩 단지 건설과 유지관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일을 즐기고 사회적 접촉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단지의 1/4 정도의 빈 공간에는 풀들이 자라고 닭을 키우고 달걀을 얻어 어린이들에게 먹이고, 최근에는 과일나무도 심었다.



<그림 4> 코하우징의 개인주거공간



<그림 5>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호주의 경우 직접 코하우징 단지를 방문할 수 없어 인터넷을 통해 코하우징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캐스케이드 코하우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이 코하우징 거주자인 이언 히긴보텀(Ian Higginbottom)씨와 10여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부족한 정보와 사진들을 제공받아 정리한 내용들이다. 캐스케이드 코하우징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공동생활이 잘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1주에 4회의 저녁식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일, 단지 내 수목을 가꾸고, 길을 만들고, 정원을 가꾸는 등의 노동을 함께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점이 가장 부러운 일 중의 하나였다.

<http://www.verdant.com.au/cascadeco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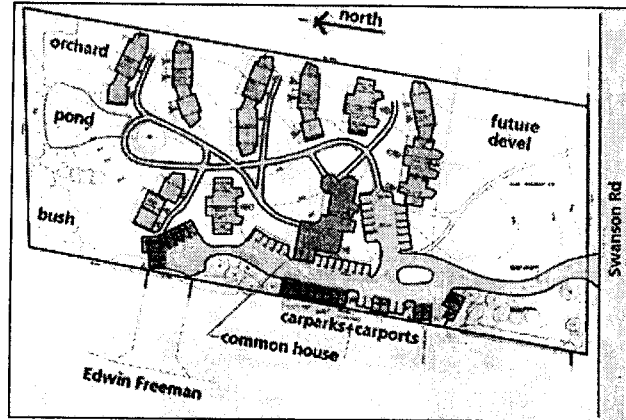
<http://www.converge.org.nz/evcnz>

<http://www.cohousing.org>

연명한 의사결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뉴질랜드의 코하우징

Earthsong Eco-Neighbourhood cohousing

1991년 시작된 32호의 분양형 주택(comdominium)으로 오클랜드(Auckland)시 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반-농촌 지역인 와이타케어 시(Waitakere City)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을에서의 사회적인 접촉, 자연과의 접촉, 자녀양육, 경제적인 효율성과 축제 등의 이점을 되살리고자 모인 사람들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과거의 이점을 혼합하도록 시도하였다.



<그림 6> 어스송 코하우징의 위치 ; Waitakere City

이곳 cohousing의 신념중 가장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코하우징의 이웃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곳의 코하우징은 1992년 겨울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완전한 재생산의 원칙에 기반을 둔 eco-village의 건설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였다. 즉 토지와 인간이 식량, 에너지, 피신처, 다른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이다. Eco-village가 세워지기까지의 2년반 정도의 시간은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들이었다.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발달시키고 집단의 역동성에 대해 배우고,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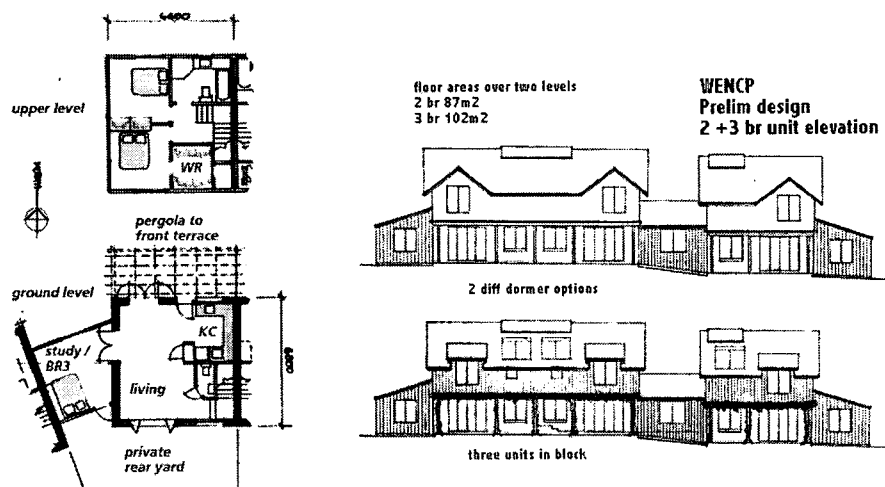
Eco-village에서는 모든 건물들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 인간들의 행위가 자연세계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즉 건강하게 인간의 발달을 지지해 주고, 무한한 미래에도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코하우징을 위해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고 이미 Scandinavia와 미국에서 성공이 증명된 코하우징을 모델로 하여 32채의 eco-housing을 건설하였다. 거주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었으며, 함께 하는 집단으로서의 생활의 이득과 개인적인 생활이 함께 접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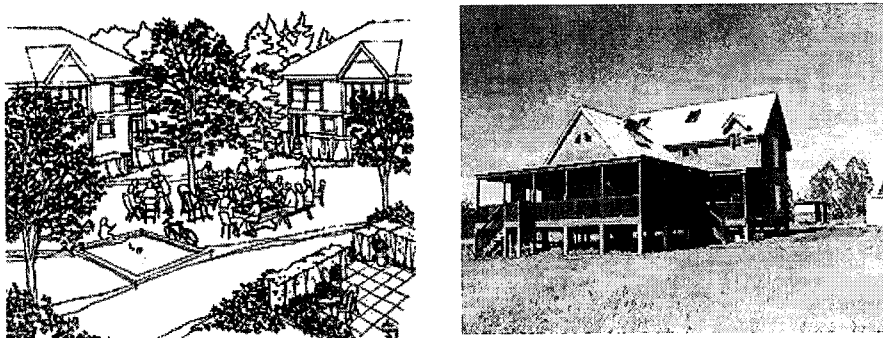
공유공간으로는 2100f²의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내에 대규모의 집회공간, 손님용 침실, 공동부엌, 공동식당, 라운지, 작업실, 세탁실, 놀이실, 10대를 위한 공간 등이 제공되므로 개인의 주거공간을 일반적인 주택보다 조금 작아질 수 있었다.

개인적인 주택은 'townhouse'와 같은 일반적인 2층으로 자유로운 대지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각 집들의 규모는 40~140m²까지 가능하며, 평균적으로는 80m² 정도이다. 각 집에는 완전하며 아주 컴팩트하게 디자인된 부엌, 거실, 욕실, 침실들이 있다. 방 하나 정도는 다른 집과 교환하거나 common house의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수 acoustic 단열재를 각 주호 사이에 사용하였으며, 내·외부의 생활공간에서 서로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들의 디자인은 Auckland의 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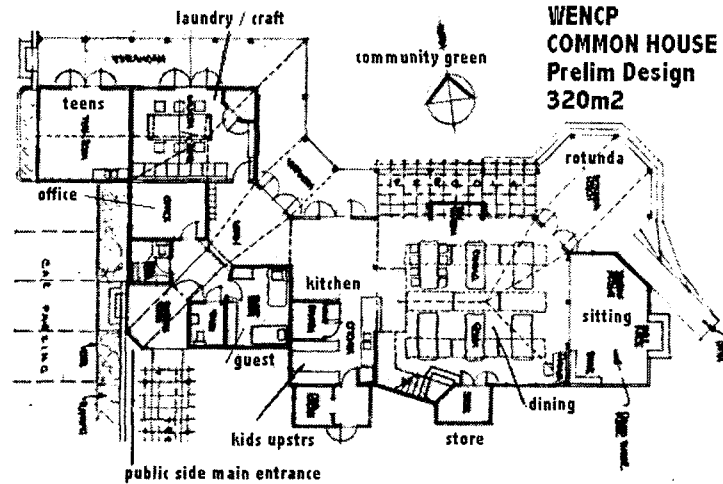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시설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각각의 집들은 자연적인 내구성있는 목재나 건축재료들로 견고하게 건설하였다. 빗물을 받는 탱크와 태양열 온수히터는 기본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모든 건물들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passive solar system을 사용하여 자연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개인주택의 전면은 테라스를 두어 이웃과 접할 수 있고, 뒤쪽에는 개인적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내부에는 보통 2-3개의 침실, 거실, 부엌을 계획하였다.



<그림 7> 개별 주택의 평면과 입면



<그림 8>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



<그림 9>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의 평면계획

이들은 회의의 토론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coloured cards'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해 나가는 방법의 기초가 되었다.

'coloured cards'를 사용하는 방법은 <표 1>과 같다.

토론과정에서의 coloured cards의 사용방법 ; 각각 다른 색의 카드는 다른 권리를 의미하며 색상에 따라 발표 순위가 있다. black -> red -> orange -> yellow -> green -> blue의 순서대로 진행자는 발언권을 주며 예를 들면 black card를 든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일단 관련된 개인들간에 또는 집단내에서 다루어진 후에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의 coloured cards의 사용방법 ; 진행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 주제를 결정할 때 평등하게 5가지 색중 하나를 선택하여 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만약 orange나 red card를 든 사람이 있다면 이전에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관심사를 말로 발표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거주자인 개리 스투어트(Gary Stewart)와 수차례의 이메일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제공받아 정리하였다. 이 코하우징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공동생활이 잘 수행되고 있어, 1주에 5회이상의 저녁식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노동을 함께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점이 가장 부러운 일이었다. 또한 의사결정이나 회의과정에서 색 카드를 이용하여 합리적이며, 거주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단시간 내에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이 높이 평가된다.

<http://www.cohousing.pl.net/infobooklet.html>

<표 1> coloured cards를 사용한 의사결정과정

토론과정에서의 의사표시	
coloured cards	의 미
black	내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회의 진행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
red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다.-과정을 중단하라는 의미 (예; 논의 내용이 주제를 벗어났다)
orange	나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승인하고 싶다.
yellow	나는 질문이 있다.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
green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blue	나는 의견을 발표하고 싶다.
의사결정과정	
coloured cards	의 미
green	나는 그 안건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blue	나는 그 안건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약간의 조건이 있다.
yellow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가지 의문에 답을 듣고 싶다.
orange	나는 합의에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중요한 조건이 있다.
red	나는 그 안건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므로 합의 할 수 없다.



<그림 10> 코하우징 단지획을 위한 주민회의 <그림 11> common house에서 자녀들과 함께